



리바운딩 구간과 중소형주펀드

1. 동학개미운동에도 주식펀드로의 자금 유입 크지 않음

- 개인은 3월 19일 이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15조원 이상의 주식 순매수
- 3월 급락시 국내주식ETF로의 자금 유입은 5000억원 수준으로 국내주식펀드(ETF제외)의 5,882억원보다 작았음

2. 리바운딩 구간에 중소형주 성과 우수

- 국내주식펀드 유형별로 3월 19일 이후의 성과를 살펴보면, 중소형펀드와 KRX300인덱스의 성과 상대적으로 우수. 주식시장이 회복되면서 코스피지수보다 코스닥지수의 상승 폭이 컸기 때문
- 중소형주펀드로의 자금 유출 이어짐

3. 개인은 코스닥도 매수

- 외국인은 3월 9일 유가증권시장에서 1.3조원을 순매도한 후, 순매도 규모를 점점 줄였음
- 글로벌펀드 시장에서 신흥국관련 주식펀드와 ETF에서 유출 규모는 줄어들고 있음
- 거래대금의 급증은 개인의 투자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 강세 현상을 가져올 수 있음. 가격 하락으로 코스닥 시장의 가격 메리트가 높아진 점은 중소형주펀드의 양호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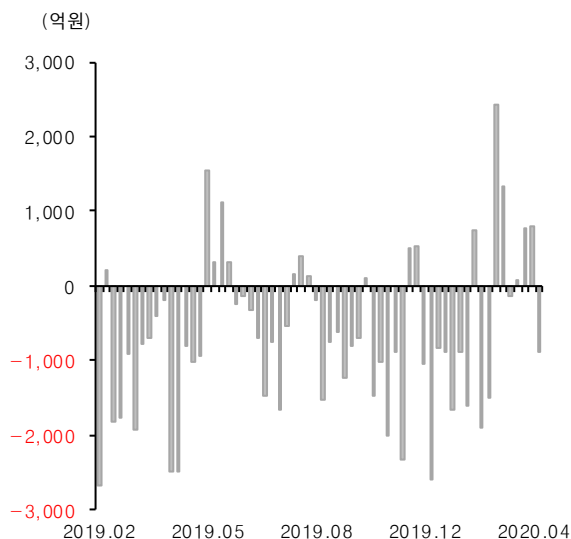
1. 동학개미운동에도 주식펀드로의 자금 유입 크지 않음

코로나19 영향으로 변동성이 매우 커진 3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예전 급락시기에는 볼 수 없었던 대규모 개인의 주식 매수가 있었다. 개인은 3월 19일 이후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15조원 이상의 주식을 순매수하면서, 외국인의 매도를 받아냈다.

반면, 최근 몇 년 동안 주가 급락시마다 나타났던 국내주식펀드로의 자금 유입은 국내 주식 매수 금액에 비해서는 크지 않았다. 3월 급락장에서 특이한 점은 주가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자금 유출입이 커지곤 했던 ETF로의 자금 유입이었다. 지난 12월 주식시장 조정시에 3조원이 넘게 들어왔었던 국내주식ETF로의 3월급락 이후 2주간 자금 유입은 5000억원 수준이었다. 오히려 ETF를 제외한 국내주식펀드로의 자금 유입 규모가 더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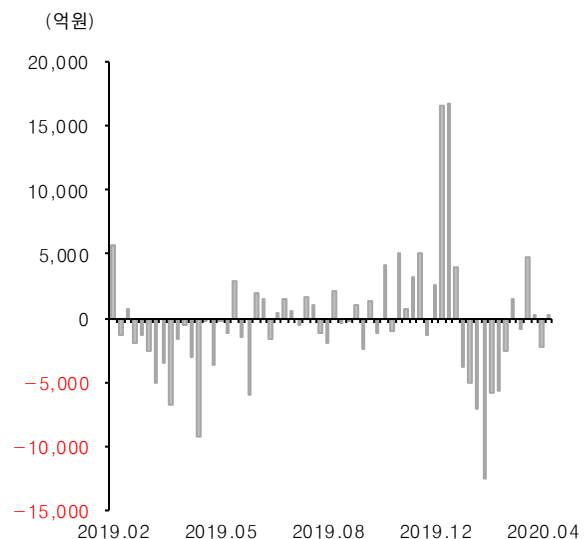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너무 커지면서, 투자자들이 간접투자보다는 리바운딩 폭이 더 클 것으로 보이는 개별 종목을 중점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 평소 주식거래를 하지 않았던 투자자들까지 삼성전자 등 우량주 중심으로 매수를 늘린 것도 직접투자가 선호된 이유였다.

[차트1] 국내주식펀드(ETF 제외)는 3월 급락시 5,882억원 순유입



자료: 금융투자협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국내주식 ETF 는 3월 급락시 5,017억원 순유입



자료: 금융투자협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리바운딩 구간에 중소형주펀드 성과 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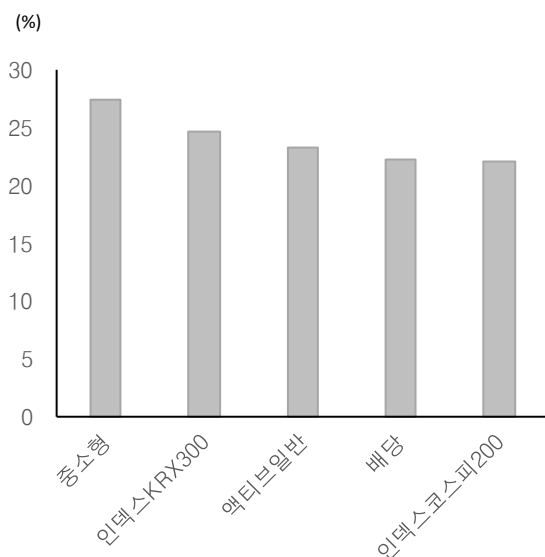
국내주식시장은 지난 3월 19일 저점을 찍은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물론 주식 시장의 하락폭이 컸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목이 3월 중순의 가격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이다.

국내주식펀드 유형별로 3월 19일 이후의 성과를 살펴보면, 중소형펀드와 KRX300인덱스의 성과가 상대적으로 우수하다. 그 뒤를 액티브일반과 배당주가 차지하고 있다. 코스닥지수가 코스피지수 상승률을 크게 앞서면서, 코스닥 편입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형주펀드 성과가 양호했다.

반면, 중소형주펀드로의 자금 유출은 이어지고 있다. 중소평주펀드는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던 2018년 자금 유입이 크게 증가한 이후, 자금 유출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2019년 이후로는 중소형주펀드에서 자금 유출 규모가 줄어들면서, 중소형주펀드의 수급 부담은 줄어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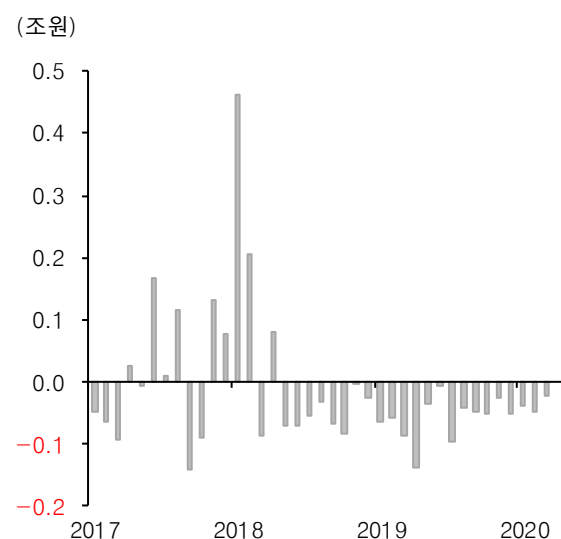
최근 몇년간 ETF 투자가 늘어나면서, 중소형주뿐만 아니라 액티브일반과 배당 등 액티브주식유형에서는 자금 유출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차트3] 3월 19일 이후 국내주식펀드 유형 중 중소형주펀드 성과 우수



자료: FnSpectrum,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중소형주펀드 자금 유출입 추이



자료: 금융투자협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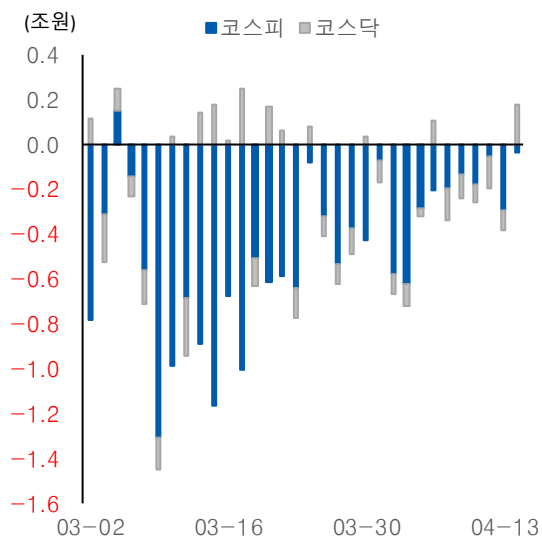
3. 개인은 코스닥도 매수

3월 이후,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각각 15조 936억원과 7959억원을 순매도하였다. 시장 규모를 감안하면, 외국인은 코스닥시장보다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을 더 매도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은 3월 9일 유가증권시장에서 1.3조원을 순매도한 후, 순매도 규모를 점점 줄이고 있다. 또한 외국인은 3월 5일 이후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연속 순매도하고 있으나, 코스닥 시장에서는 3월 이후 13 영업일은 순매수하였다.

글로벌 펀드 시장에서 3월 마지막주부터 신흥국주식펀드와 ETF에서 순유출 규모가 줄어들고 아시아주식(일본제외)펀드와 ETF가 순유입 전환한 것을 감안하면, 외국인 수급은 향후 순유입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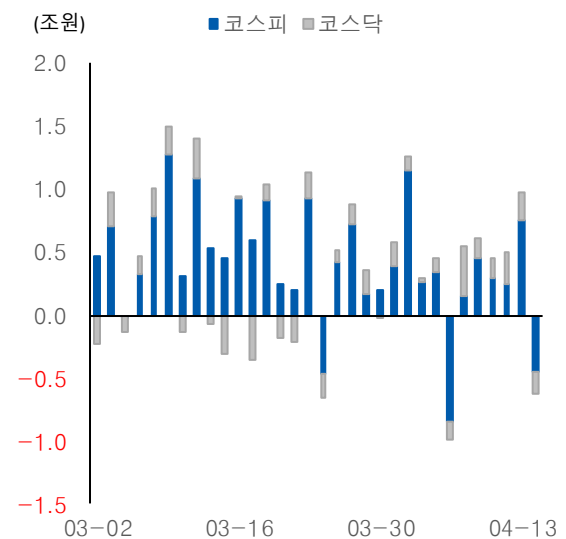
3월 이후, 개인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각각 13조 5664억원과 1조 4003억원을 순매수하였다. 개인이 수급주체로 등장하면서 거래대금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거래대금의 급증은 개인의 투자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의 상대적 강세 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 가격 하락으로 코스닥 시장의 가격 메리트가 높아진 점은 코스닥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형주펀드의 양호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차트5] 외국인, 유가증권시장 매도할 때도 코스닥 매도는 크게 늘리지 않았음



자료: Fn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4월 14일 기준

[차트6] 개인, 코스닥 매수 이어감



자료: Fnguid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4월 14일 기준